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2년도 표어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마태복음 강해

예수님의 삼중 사역 (마 4:23-25)

Jesus' Triple Works (Matt. 4:23-25)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었지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말씀처럼 때가 되기까지 이 땅에서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23절).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 공생애 기간 동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남기신 사역을 계속 하도록 하셨습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Jesus' death on the cross was the greatest purpose of which He became the incarnation. As He said, "My time has not come yet," Jesus had a lot of work to do on the earth till His time was to come.

"Jesus went throughout Galilee, teaching in their synagogues, preach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and healing every disease and sickness among the people" (v.23).

During His public life, Jesus, before His death, had to work to teach, preach, and heal people.

Until now, Jesus has made us to continue His work which was left to us, the church, the body of Jesus Christ

1. 가르치는 사역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생각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웃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상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시키므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는 다음 세대에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전체 한국교회의 어린이 숫자가 해마다 약 10%씩 감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교회학교의 위기입니다. 교회학교의 위기는 한국교회 전체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80년대의 한국교회 부흥은 교회학교 성장기였던 60~70년대 어린이 성도들이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

2. 전파하는 사역

전파하다는 헬라어로 '케뤼손' 이라고 하는데 '케리그마',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이 교회 안에 들어 온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이라면, 전파하는 사역은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며 열정을 쏟아 부으셨던 사역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하여 있어왔던 모든 부정적인 일들은 결국 죄의 문제이며,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3. 치유 사역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특별히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깊은 병이 들어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 4:12).

살아 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은 다 치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이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25절).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하시므로 가정과 이웃, 나아가서는 온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 The mission of teaching

Jesus taught people by going throughout Galilee. The work of teaching cannot be made by thinking. We have to get up and visit neighbors. So, we must teach God's word by going 'throughout' like Jesus.

The most important mission in the Church, and battle for holy ground is to teach the Gospel. Each church must teach God's word, educate, and train Christians, at the same time they must let them to be born again as Jesus' real disciple.

Especially the church has a mission to educate very hard for the faith of the next generation. From a decade ago, the number of children in the entire Korean Church is dropping 10 percentage point every year. In a word, it is a crisis of Sunday school. The crisis of the Church school will lead to a crisis of the entire Korean Church. The revival of Korean Churches in the 1980s was a result of Korean Church growth led by youngster Christians between 1960-1970.

2. The mission of preaching

'Preach' in Greek refers to 'keruison' and originates from 'kerygma.' If the mission of teaching is to train, educate, and teach those who come to Church, the mission of preaching is to spread the gospel to those who are outside the church. The mission of spread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is Jesus' work of which Jesus invested the largest sum of time in.

There is no hope in the world. All of the negative works that have existed through the history of mankind is the problem of sins, and its problem can only be solved with only the blood of the cross.

3. The mission of healing

Jesus healed every disease and sickness. At present time there are many people who have deeply been ill mentally, and psychologically.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it penetrates even dividing soul and spirit, joints and marrow; it judges the thoughts and attitudes of the heart" (Heb 4:12).

Our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seases can be healed by God's word that is living and active, and by God's word that is sharper than any-doubled sword. This power has already received by us who are the church of Jesus' body.

My beloved Christians!

"Large crowds from Galilee, the Decapolis, Jerusalem, Judea and the region across the Jordan followed him" (v. 25).

When we completely are able to fulfill our duty of mission for teaching, preaching, and healing, our church will wonderfully be revived.

By fulfilling these three missions, I sincerely pray that you and I will give a divine influence to your family, your neighbors, and even further on the earth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여름 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 안에 계속 이어져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 (마5:13-16, 행전2:11-12) -

2012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금주에는 다음 세대의 주역인 유아부 · 유치부 · 유년부 · 초등부가 27일(금)~29일(주) 교회에서, 또한 우리의 희망 청소년들인 중등부 · 고등부가 26일(목)~28일(토)에 아가페타운에서 열릴 예정이다.

무더운 여름,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에 우리교회 모든 학생들이 열심으로 참석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배워, 섬김의 본을 다하여 놀라운 변화와 승리를 경험하는 기독교 학생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012년 7.27(금)~29(주일)	서울교회	세상을 위하여 반짝아! 형-형-	최인애 전도사
유치부			나는 반짝 아이예요	박다형 전도사
유년부			나의 삶이 수레 영광!	김민성 목사
초등부			FOR GOD!	이선우 전도사
중등부	7.26(목)~28(토)	아가페타운	나를 보내소서! 복을 전하는자의 삶을 축복하소서!	노정호 목사
고등부	7.26(목)~28(토)	아가페타운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이종진 목사
청년1부	8.15(수)~17(금)	아가페타운	부르심	박노철 목사 박진아 목사
청년2부	8.15(수)~17(금)	아가페타운	KNOWING GOD	박노철 목사 오세관 목사
디아스포라	8.2(목)~4(토)	아가페타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박광일 목사
예배다	7.31(화)~8.1(수)	아가페타운	세상의 빛과 소금	원광원 목사
신혼가정부	8.14(화)~15(수)	아가페타운	빛과 소금된 가정	한성연 목사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단기선교팀 파송식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 캄보디아 : 7. 23(월) ~ 7. 31(화), 캄퐁츠낭지역에서

2012 캄보디아 단기선교팀(단장 : 김금준집사) 내 이들의 사역과 건강, 입국절차 및 모든 과정에서 하 일 23일(월)에 선교사역지 캄보디아를 향해 나아간다. 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길 많은 성도들의 기도 부탁 단원은 단장인 김금준 집사와 25명이며 사역지는 드린다. 캄보디아 캄퐁츠낭지역이다.

서울교회 facebook 익투스 메일링 서비스 시작

<http://www.facebook.com/seoulichthus>



지난 흥해작전 때 인증샷으로 많은 호응을 얻은 서울교회 facebook이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 메일링 서비스를 시작 하였다. 서울교회 멀티미디어단(부장: 오정수 장로, 차장: 김시환 집사)은 현재 교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시 기재 된 메일을 대상으로 1차 메일을 발송하였다. 페이스북에 미가입한 성도들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기 바라며 익투스의 다양한 콘텐츠 -이종운 원로목사 신앙칼럼, 박노철 목사의 짧지만 긴 여운, 러브 인 서울교회, 누룩과 겨자씨 등-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적극적 참여로 더욱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서울교회 익투스는 네이버와 다음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



- 1 <http://www.facebook.com>에 접속하세요
- 2 간단히 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회원가입하세요
- 3 서울교회 익투스! <http://www.facebook.com/seoulichthus>에 접속하세요



(다음주 계속)

다락방모임 방학

7월 29일(주일)~8월 26일(주일)

다락방 모임은 7월 29일(주) 부터 8월 26일(주) 까지 방학하며 2학기 다락방모임은 8월 31일(금) 부터 시작된다.

다락방리더훈련 개강

- 일시 : 2012년 8월 29일(수), 수요1부 예배후
- 장소 : 웨스트민스터홀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56]

(문 53) 이스라엘 군대가 대군이였다면 에돔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희극케 되었으며 가나안땅을 정복하는 일에 그토록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까? (민20:14-21, 수7장)

답) : 민26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군대 수는 601,730명으로 에돔을 누르기에 충분한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민20:14-21에 의하면 에돔왕이 이스라엘의 통과를 저지하자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려 할 때도 유약해 보이는 아이성을 치기 위해 3,000명 정도의 군대를 보내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수7:4) 그러나 뜻밖에도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36명을 쳐 죽이고 계속 추격해 옴으로 그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이와 같은 곤경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군대의 수가 전채의 승패를 결정하지 못함을 보여준 실례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웅장하고 찬란했던 옛 로마 도시들이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된채 북아프리카의 모래사장 아래에서 발견되고 있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골짜기와 언덕마다 화석류가 발견되는 것은 옛날의 영광을 입증할 뿐 아니라 그것들이 왜 폐허 속에 묻히게 되었으며 골짜기에 화석이 되었는지를 묻게 하는 것입니다. 결코 군대의 수나 무기가 모자라서 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Alan Crown의 보고에 의하면 주전 2,3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심한 기근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비가 적당히 내림으로 백성과 군대가 생존 유지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군대의 수가 적어서도 아니고 자연의 재해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신 2:9) 그러므로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전도 -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떠나며

캄보디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김금준 집사(2012년 단기선교팀 단장)

할렐루야! 줘 립 슈어(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수 개월 동안 준비한 캄보디아 단기선교팀이 이제 7월 23일(월)에 캄보디아를 향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단기선교팀은 "캄보디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이라는 표어와 같이 복음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캄보디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재성구인 "주여,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소서"와 같이 저희는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요 선교활동은 어린이학교, 어머니학교, 아버지학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세워지고 있는 캄퐁츠낭 군인교회의 준공과 더불어 7월 31일(화)에 있을 교회 헌당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단기선교팀은 짧은 기간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과 믿음의 친구가 될 것이며 세워진 군인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도록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기선교 바자회를 통하여 후원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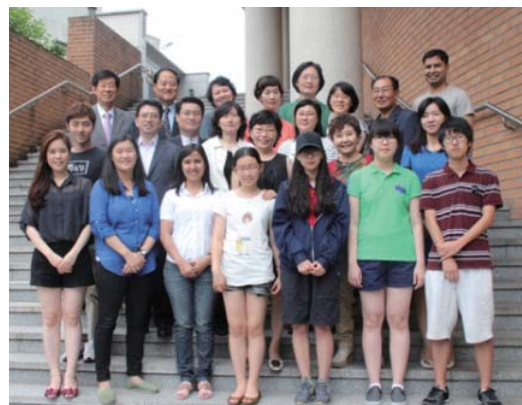
- 단 장: 김금준 집사
- 부단장: 임흥수 집사
- 총 무: 현승희 집사
- 서 기: 송행희 집사
- 회 계: 김정제 집사
- 단 원: 이정희 집사, 박영석 집사, 하옥봉 권사, 우승희 집사, 정호진 집사, 황영숙 집사, 김태희 집사, 최보희, 이실비아, 류혜진, 채승병, Bhandari, Pratibha, 한지훈, 한승연, 조유정, 최재우, 이은혜, 박상준, 박성준
- 선교기간: 2012.7.23(월) ~ 7.31(화)
- 선교지역: 캄보디아 캄퐁츠낭
- 파송선교사: 이재울/박병진 선교사, 전호진 선교사 (캄보디아 장로교신학교 총장)

개인 기도 제목

- 김금준 집사: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정을 잘 소화하기를 원하며 모든 단원들이 안전하게 선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 임흥수 집사: 이번에 운영할 아버지학교에 현지주민 30명 이상 참석하여 10명 이상의 결신자를 거두고 금연, 금주 운동이 전체 마을에 확산되도록, 전 일과 중에 좋은 날씨와 좋은 교육환경을 주시옵소서.
- 현승희 집사: 모든 단원들의 영육이 강건하여 지지 않게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길, 우리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길 기도합니다.
- 송행희 집사: 믿음의 동역자로 작은 모퉁이 되어 세계선교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 김정제 집사: 팀원간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도록, 두고 가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 이정희 집사: 아버지학교를 잘 감당하게 하고 참여한 아버지들이 가장으로서 믿음의 본이 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 박영석 성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모든 일을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고 그 곳에서 즐겁고 보람 있고 안전하게 사역하게 하옵소서.
- 하옥봉 권사: 우리를 예수님의 편지와 예수님의 향

기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 우승희 집사: 많은 사역(유년부와 반주)을 잘 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성준, 성준 두 자녀를 붙드셔서 단기선교를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비전을 발견하고 준비된 일꾼으로 자라나도록.
- 정호진 집사: 가족 3명(이정희 집사, 은혜) 모두 캄보디아 선교 중 하나님의 터치를 느끼며 남은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황영숙 집사: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통하여 선교에 대한 큰 비전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김태희 집사: 고등학생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단기선교에 같이 참여한 한지훈과 승연 그리고 친구 이은혜가 선교활동에 잘 동역하고 믿음이 더욱 든든하게 서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 Bhandari(반석), Pratibha 부부(영어에배부): Please pray that we will be channels of God's blessing for the people of Cambodia and that Jesus Christ will be glorified through all that we do during our trip to Cambodia.



중·고등부 수련회 초대이글

나를 보내소서!

유한희 (중등부 학생회장)

다가오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 동안 아가페타운에서 중등부 여름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나를 보내소서!”라는 주제로 중등부 학생들이 8개조로 나뉘어 교회에서 아가페타운까지 각 조별로 흩어져 걷기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이동하려 합니다. 그리고 아가페타운까지 가는 여정 동안 낮선 동네와 낯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작은 순례자의 길을 떠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수련회가기 전 4주일 동안의 중등부 공과공부 시간에 전도해야 하는 이유와 전도하는 방법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하여 배우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실천하면, 우리는 예수님 모습을 조금 더 닮아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여행을 통하여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되면 학교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에는 양화진 외국인선교사 묘역에 가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찾아보며,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다짐하려 합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시작되는 수련회라 약간의 걱정도 되지만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부모님과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기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고등부 수련회는 T.O.P

임형빈 (고등부 교사)

고등부에서 별다른 재미와 참여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교회를 걷도는 고등부 학생 여러분!! 신앙과 우정을 불태울 수련회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만 한 번, 주일날 짧은 1시간 동안의 고등부 집회는 우리들이 변화하고 에너지를 얻기에 너무나 부족한 시간입니다.

오는 7월 26일 부터 2박 3일 동안 있을 고등부 여름수련회는 삭막한 입시교육에 시달려 메마른 우리 고등부 영혼들을 단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끈끈한 우애로 흠뻑 빠지게 할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고등부 임원단과 선생님들이 직접 발로 뛰며 준비한 고등부의 완성입니다.

친구가 없어 혼자서 발걸음을 꺼리는 지체들, 아가페타운으로 출발할 때는 쓸쓸한 발걸음을 옮겼지만 떠나올 때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수련회의 끝을 아쉬워하며 돌아오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 일정이 겹쳐 오기를 망설이는 지체들, 고등부 수련회를 참석하며 얻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이 포기하고 온 그 어떤 것들보다 훨씬 값지고 소중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웃기만 스쳐 지나가던 고등부 지체들과의 훈훈한 교제와 그간 부족했던 하나님의 체험과 그분의 자녀됨으로서의 열정과 비전의 계획이 이번 고등부 수련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7월 26일 아침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뵈기를 소원합니다. 고등부 집회가 그냥 커피라면 고등부 수련회는 T.O.P 입니다

교육1국 여름 성경학교 초대이글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와 선택

김인성 목사(유년부 지도)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알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막 6:30-31)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제자들은 밥 먹을 짬도 없을 만큼 열심히 자신의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조용한 곳에 가서 쉬게 하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생활하며 때로는 밥 먹을 짬도 없이 바쁘게 일과와 임무를 감당해야 했던 어린이들이, 그 일들로부터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 잠시 쉴 시간, 바로 여름성경학교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쉬면서, 내가 왜 배우고 공부하는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름성경학교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를 (7월 27일 금 / 28일 토)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입니다. 하지만 지도교역자들과 교사들은 1년의 교

육활동 중, 가장 큰 마음의 부담을 안고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잘 알게 되기를, 예수님을 항상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고 의지하면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감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프로그램들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며 바쁜 일과와 임무를 수행했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잠깐 쉴 수 있고 신앙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름성경학교에 꼭 참석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4일(화) 한국장로교총회창립100주년 기념 대회 준비위원회에 참여한다. 25일(수) 한국로잔위원회 월례모임에 참여한다. 장로교표준주석출판을 위한 장로교출판사와 총회교육부 직원 위로 및 간담회를 갖는다. 26일(목) 한국장로교 일교단 다체제(연합장로교)헌법공정회를 소집한다.
- 박노철 담임목사는 25일(수)~8월9일(목) 트리니티신학교 목회학 박사과정 및 미주집회를 위해 출국한다.
- 득남: 3~10다락방 최지훈 성도 한혜선 성도(최임수 집사 노인숙 권사 차남 가정)
- 득남(쌍둥이): 4~11다락방 김병선 성도 손지는 성도
- 주간식당봉사: 도르가전도회(7.22) 루디아전도회(7.29)
- 금주의 식사: 정현숙 권사 가정
김성철 성도 이윤신 성도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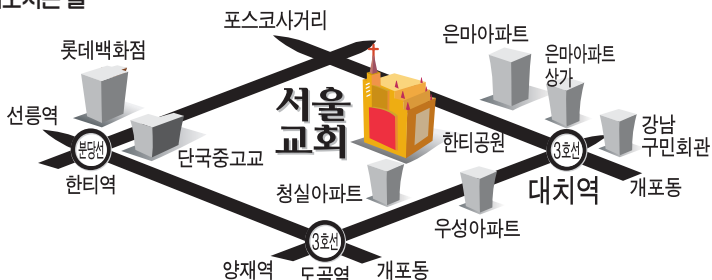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이번주에도 계속 이어지는 교육 1국, 중등부, 고등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우리교회 다음 세대들이 기쁨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2. 7월 23일에 파송되는 캄보디아단기선교팀이 성령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복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3. 방학에 들어가는 다락방 모임이 참된 안식과 함께 영적으로 준비되는 기간이 되어 부흥을 담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